# “슬픔이 슬픔을 어루만지며 위로”

## 공선옥 작가 소설 ‘선재의 노래’ 펴내

### 할머니 죽음 맞은 10대 소년 이야기
### 글 쓰며 상실의 아픔 위안 받아
### 내년 상반기 후속편 2권 출간 예정

공선옥 작가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이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일이 아닐까 싶네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잃었을 때 사람은 어린이 마음이 되는 것 같아요.”

곡성 출신 공선옥 작가(60)는 지난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을 겪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이런저런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겪게 된다. 타인이 또는 나와 무관한 사람이 당하는 슬픔은 ‘고통이 클 것이다’ 정도로 지레짐작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그 슬픔의 주인공이 되었을 때는 차원이 달라진다. 말로 형언하기 힘든 고통과 무참함을 느끼게 된다.

공선옥 소설가가 이번에 펴낸 청소년 소설 ‘선재의 노래’(창비)는 사랑하는 이가 영영 떠나버린 세상에 홀로 남은 아이의 이야기이다.

작가는 전화 통화에서 “내가 아픔을 겪다 보니까 내 이야기는 직접적으로 쓸 수 없었다”고 했다. 소설가는 남의 이야기를 자신의 일처럼 쓸 수 있고 나의 이야기를 제 삼자의 이야기처럼 쓰는 존재임을 가정하면, 이번 이야기는 상실의 아픔을 모티브로 독자들과 공감하고자 하는 바람이 담겨 있을 거였다.

그는 ‘작가의 말’에서 이렇게 부연했다. “깊고 깊은 슬픔 속에서 선재 이야기를 썼다. 글을 쓰면서 나는 선재가 되었다. 육십 살 나는, 글을 쓰면서 열세 살이 되었다. 선재는 글 밖으로 나와 내 등을 쐐애, 쐐애, 쓸어 주었다. 슬픔이 슬픔을 어루만져 주었다.”

작품 속 주인공인 선재는 할머니와 단둘이 산다. 가끔 부모님 빈자리를 느끼지만 할머니는 사랑으로 선재를 보살핀다. 풍족하지는 않지만 크게 부족함 없이 하루하루를 살던 어느 날 선재는 예기치 않은 상황과 맞닥뜨린다.

언제나 자신의 곁에 있어줄 줄 알았던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것이다. 소설 속 선재의 말은 상실의 강도가 어떠한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 같은 날들은 언젠가는 끝나게 된다. 그것은 실제 상황이다.”

선재의 곁에는 아무도 없다. 연락이 닿는 친척도 없다. 할머니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집에는 특유의 할머니 체취가 남아 있다.

선재의 뇌리에 할머니와 했던 지난날들이 설핏 스쳐간다. 특히 괜한 심통에 어리광을 부렸던 날 보았던 할머니의 깊은 울음소리를 비롯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돌아온 자신의 말을 받아주던 할머니의 다정한 목소리는 선재를 더욱 힘들게 한다.

이번 소설은 만해문학상, 신동엽문학상, 올해의예술상, 요산김정한문학상 등을 수상한 공 작가의 청소년 소설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전작들에서 어려움과 싸워가며 자신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청소년을 그렸던 것처럼, 작가는 이번 작품에서도 애도와 성장에 무게중심을 두고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다행히 소설에는 친척은 없지만 마을 주민들과 친구 등이 선재를 챙긴다. 홀로 남은 선재를 걱정하며 찾아온 상필이와 마을 할아버지는 든든한 친구라 할 수 있다.

공 작가는 “이번 소설은 코로나 이전의 이야기이며 연작 소설의 첫 번째 해당하는 서사”라며 “내년 상반기까지는 두 권 정도 소설이 더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연작소설은 선재의 친구인 상필이가 할머니를 잃어버린 슬픔을 다룬 이야기이며 세 번째 연작은 이번 소설에 등장하는 보라색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남아 슬픔을 감당해야 하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다뤘다”고 밝혔다.

작가는 서사는 거의 다 썼고 지금은 마지막 작업을 하는 중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혼자 된 할머니는 어린아이 마음이 돼버린다”며 상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했다. 할머니의 고통과 슬픔을 먼저 그 고통을 경험한 선재와 상필이 위로하는 내용이 될 것 같다는 얘기였다.

현재 공 작가는 2015년 가을부터 담양 수북에 거주하고 있다. 요즘 근황을 물었더니 “쓰고 싶은 이야기는 너무 많은데 시간은 한정돼 있고 체력이 부친다”며 소설에 대한 열정을 에둘러 표현했다.

작가에게 지금 슬픔을 당했거나 가까운 이를 잃어버려 고통 가운데 있는 이를 위해 어떤 위로가 필요할까, 라는 말을 물었더니 그는 “견디다 보면 힘이 생깁니다. 내성이 생기니까요”라고 말했다.

그 말은 소설 속 선재를 통해 위로받은 작가의 고백일 터였다. “열세 살 선재의 슬픔에 육십 살 내 슬픔이 기대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났다. 그리고 다시 봄이다. 사방에서 꽃이 피고 새 움이 돋는 봄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박진현의 문화카페

# 기대반 우려반 ‘오페라하우스’

‘대구에서는 주부들의 곗날 모임에 오페라 관람이 빠지지 않는다’. 몇 년 전 입소문을 통해 전해 들은 대구의 오페라 신드롬이다. 진원지는 다름 아닌 대구오페라하우스. 지난 2003년 ‘오페라 지방화’를 내걸고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오페라 전용 단일극장으로 개관한 곳이다.

사실, 대구의 ‘오페라 사랑’은 유명하다. 오페라하우스 개관을 기념해 창설한 대구오페라축제와 2007년 탄생한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DIMF)를 통해 매년 전국의 공연애호가들을 불러 들이고 있다. 대구오페라하우스가 지난 20년간 무대에 올린 오페라 작품은 모두 219편(501회 공연), 동원 관객만 60만 명에 이른다.

올해 개관 20주년을 맞은 대구 오페라하우스는 제2의 도약을 선언했다. 지난해 바그너의 4부작 오페라 ‘니벨룽의 반지’를 17년 만에 공연해 존재감을 뽐낸 여세를 몰아 ‘2023년 국제오페라축제’ 개막작으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살로메’(10월 6~7일)를 국내 초연하기로 한 것이다.

대구가 오페라 도시로 불리게 된 데에는 시민들의 남다른 가곡 사랑이 있다. 현재 대구에는 40여 개의 가곡교실이 있으며 2000여 명의 시민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우리 가곡이나 외국 가곡을 배우고 노래한다. 특히 경북대, 계명대, 영남대, 대구 가톨릭대, 대구예술대 등 5개 대학의 음악대학에서 배출되는 인적 인프라는 도시의 큰 자산이다. 여기에 1000여 석이 넘는 공연장이 7개이고, 1992년 전국 최초로 창단된 시립오페라단을 보유하는 등 풍성한 공연생태계를 갖추고 있다. 이같은 탄탄한 인프라와 높은 티켓파워 덕분에 대구는 ‘공연예술 중심도시’,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라는 화려한 타이틀도 얻었다.

하지만 ‘오페라 도시’에게도 고민이 적지 않다. 가장 큰 난제는 예산이다. 한해 평균 30억 원(작품 한 편당 6억 5000만원)으로 경쟁상대로 꼽히는 국립오페라단의 100억 원에 크게 못미치는 수치다. 또한 1년에 100회 이상의 공연을 무대에 올려야 수익성을 맞출 수 있지만 열악한 예산이 발목을 잡고 있다. 이는 곧 낮은 가동률로 이어지고 그로 인해 관객들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되고 있다.

최근 광주시가 전문예술극장 ‘오페라 하우스’를 건립하기로 하고 상반기 중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문화도시’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정상급 수준의 뮤지컬, 오페라 등 대형 작품을 올릴 수 있는 전문 공연장이 부재하다는 판단에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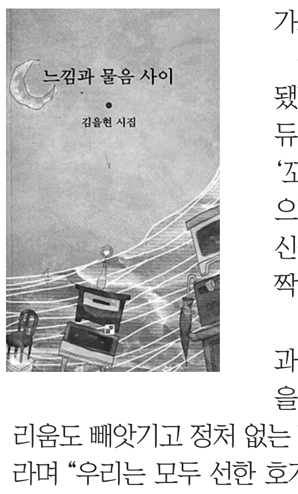
물론 시민들의 수준높은 문화향유를 위해 공연 장르에 최적화된 ‘무대’를 건립하는 건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오페라하우스에 담을 콘텐츠다. 공연장을 가동시키려면 다양한 작품을 통해 관객들을 불러 모아야 하는 데, 예산부족으로 레퍼토리가 바꾸지 않으면 롱런하기 힘들다.

그런 점에서 ‘오페라하우스’ 카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공연장을 만드는 건 일회성으로 끝나지만 운영은 그 보다 몇배 이상의 비용이 꾸준히 들어가기 때문이다. 특히 시 산하에 8개의 예술단을 거느리고 있는 광주시가 관객층이 얕은 ‘특정 장르’(오페라)에 매년 수십 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부담도 만만치 않다. 광주시의 면밀한 검토와 판단이 필요한 이유다.

〈문화·예향국장, 선임기자〉

# 짜장면 배달 시인의 논둑길 서정

## 김을현 시인, 작품집 발간…29일 광주서 출판기념회




배달용 소형 자동차를 몰고 논둑길, 밭길을 달리며 낭만과 서정을 써내려간 시를 묶은 작품집이 발간됐다.

김을현 시인이 펴낸 ‘느낌과 물음 사이’는 시인이 일상에서 겪은 일화, 풍경, 소소한 감정을 담고 있다. 제목처럼 시집에는 느낌과 질문 사이에 드리워진 다양한 호기심을 노래한 작품이 수록돼 있다.

시인은 무안 사거리반점에서 ‘짜장면을 배달하는 시인’으로 알려져 있다. 모 방송에 주방장 김경만 씨와 함께 출연하며 이목을 끈 바 있다.

시집 발간을 기념하는 출판기념회가 오는 29일 광주공원 ‘카페 사잇길’에서 열린다.

기타경력 43년, 기타리스트 야니 김도연과 야씨패밀리를 초청해 문학과 낭만이 어우러진 분위기를 연출한다. 야씨패밀리는 구독자 5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음악 생활을 하고 있다.

축사와 시낭송의 무대도 펼쳐진다. 정윤천 시인의 치사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의 차꽃 곽성숙 시인의 축사가 이어진다. 또한 시낭송은 광주시낭송의 노둣돌 박애정 시낭송가와 놀이세상 시옷의 대표로 어른이 문화를 만들어가는 문은희 시낭송가가 맡았다.

특별한 이벤트도 준비됐다. ‘시인과 주방장’이 듀엣으로 등장해 자작곡 ‘꼬부랑할머니’. ‘날아봤으면’ 등 히트곡과 함께 신곡 ‘나머지 공부’를 깜짝 발표한다.

김을현 시인은 “‘느낌과 질문 사이’는 호기심을 잃는 순간 사랑도 그리움도 빼앗기고 정처 없는 방황을 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모두 선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으니 그것을 좀 더 가치 있게 활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사찰서 도난당했던 불화·불상 제자리로

## 조계종, 32점 환수 고불식

전국 14개 사찰에서 도난당했던 불화와 불상 30여 점이 오랜 공백을 끝내고 제자리로 돌아갈 채비를 마쳤다.

대한불교조계종은 23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불교 문화유산 32점을 환수했다고 부처님께 고하는 고불식(告佛式)을 봉행했다.

이번에 환수한 불교 문화유산은 1988년부터 2004년 사이 전국 사찰 14곳에서 보관해오다 도난당하거나 유출된 이후 되찾은 불화 11점, 불상 21점 등이다.

고불식은 예경, 헌향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 참석한 사찰 관계자들은 경북 포항 보경사 영산회상도(靈山會上圖), 구례 천은사 제석천상(帝釋天像)과 나한상(羅漢像) 앞에서 예를 표하며 성보가 무사히 돌아온 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조계종에 따르면 이 불화와 불상은 2020년 그 존재가 드러났다.

서울의 한 경매에서 보경사의 ‘영산회상도’와 ‘지장보살도’(地藏菩薩圖) 2점이 출품된 사실이 처음 알려진 뒤, 약 7개월간 수사를 벌인 끝에 오랜 시간 은닉된 불교 문화유산 32점을 찾아냈다.

지난해 관련 재판이 마무리되면서 국립고궁박물관에 임시 보관된 불화 등은 본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